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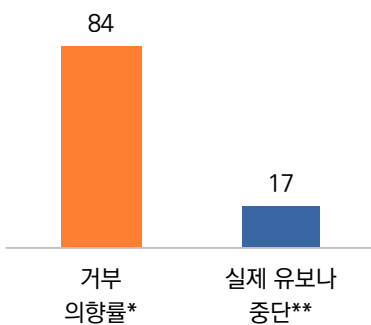


## [연명의료 실태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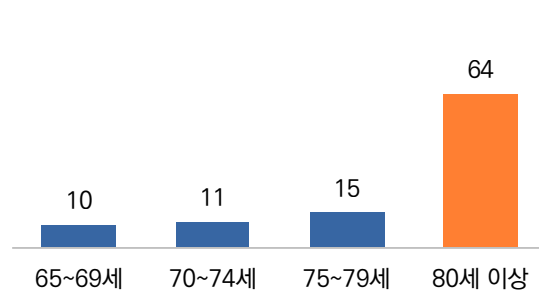
# 65세 이상 고령층, 연명의료 거부 84%, 실제 중단은 17%

- 최근 한국은행은 ‘연명의료, 누구의 선택인가’가 보고서를 통해 연명의료 실태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를 살펴본다.
- 먼저 연명의료 거부 의향과 실제 중단 수준을 비교한 결과, 65세 이상 고령층의 대부분(84%)이 회복 가능성이 없을 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응답했다. 그러나 실제 65세 이상 사망자 중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비율은 17%에 불과했다. 환자 개인의 의향과 실제 의료 행위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.
- 연명의료 시술 비중을 연령별로 살펴보면, 연령대가 높을수록 시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. 특히 80세 이상은 연명의료 시술 비중이 64%에 달했다.

[그림] 연명의료 거부 의향 vs 실제 중단  
(2023, 65세 이상 고령층\*/사망자\*\*, %)



[그림] 연명의료 시술 연령별 비중  
(2023, 65세 이상 사망자 기준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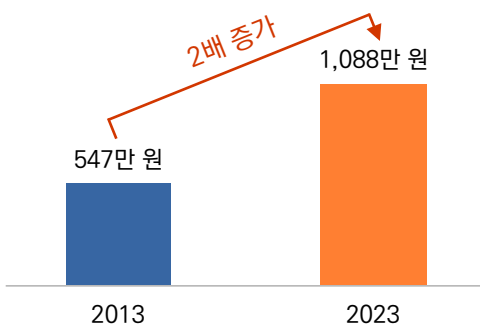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한국은행, ‘연명의료, 누구의 선택인가: 환자선호와 의료현실의 괴리, 그리고 보완방안’(BOK 이슈노트 2025-38호), 2025.12.11.

## 연명의료 환자가 임종 전 1년간 지출하는 생애말기 의료비, 1인당 1,088만 원

- 연명의료 환자가 임종 전 1년간 지출하는 의료비를 ‘생애말기 의료비’로 정의하는데, 연명의료 환자 1인당 평균 생애말기 의료비를 살펴본 결과, 2013년 547만 원에서 2023년 10년 사이 1,088만 원으로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했다.
- 이 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순 본인부담금으로, 취약 계층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.

[그림] 연명의료 환자 1인당 평균 생애말기 의료비\*



※출처 : 한국은행, ‘연명의료, 누구의 선택인가: 환자선호와 의료현실의 괴리, 그리고 보완방안’(BOK 이슈노트 2025-38호), 2025.12.11.

\*건강보험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의미